

지각적 특출성과 내외집단간 편파가 개인의 착각상관에 미치는 영향

송 관 재 · 이 훈 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집단구성원들의 행동을 지각할 때 발생하는 두가지 편파 즉 지각적 특출성으로 인한 인지적 편파와 피험자의 내외 집단 소속에 따른 동기적 편파가 집단정보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인지적 편파와 동기적 편파의 영향이 기억에 근거한 추론과정과 온라인 추론과정으로 구분하여 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피험자들이 자극집단에 대해 집단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두 지역집단(경상도집단과 전라도집단)을 자극집단으로 정하고 피험자 역시 이 두 자극집단중 어느 한 집단에 속하는 집단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지각적 특출성으로 인한 인지적 편파와 집단소속으로 인한 동기적 편파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집단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쳤다. 즉, 피험자가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출한 두 사상의 공발생에 대한 과다추정은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에게서만 나타났고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피험자가 온라인 추론을 하는 경우는 그들의 집단소속으로 인한 동기적 편파가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호적인 정보는 과다추정하고 비우호적인 정보는 과소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집단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지각적 특출성으로 인한 인지적 편파와 내외집단 소속으로 인한 동기적 편파가 모두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구성원을 관찰할때 또는 그들과 상호작용할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은 추론을 한다. 예를들면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적 특징이나 의도, 그들의 미래행동, 행동의 원인, 그들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일반화 등과 같은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자신의 다른사람에 대한 반응 및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 추론을 한다. 즉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는가,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해 볼때 우리가 그들보다 우수한가 열등한가, 혹은 같은가 다른가 등이다. 이러한 추론과정에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정보의 복잡성에도 기인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범주정보를 사용한다. 이때 범주정보란 성, 나이, 인종, 출신 지역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범주에 관한 정보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범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신념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믿음으로 구성되는 정신적 표상 즉 인지적 구조를 고정관념이라 한다(Hamilton & Sherman, 1989). 그러한 고정관념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적 판단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우리들이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러한 고정관념 및 편견이 우리의 집단간

관계에 미치는 행동적 결과를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인지 영역에서는 고정관념 및 편견의 형성을 인지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러한 우리의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 및 편견이 우리의 집단행동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사회적 판단은 지각과정과 추론과정의 두 단계 과정(two stage process)으로 이루어져 있다(Trope, 1986). 지각과정이란 정보를 특질과 관련된 범주로 부호화하는 확인과정(identification stage)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신적 표상이 두번째의 추론과정에 입력으로 작용하며 이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정관념이란 지각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지각한 결과 그 정보들로 이루어진 정신적 표상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은 근본적으로 집단에 대한 지각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진다. 즉 우리의 집단에 대한 지각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집단에 대한 추론 및 평가도 달라지며, 그러한 평가와 연합된 특정한 내용들이 우리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때 집단지각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편파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고정관념의 형성과정 및 집단간 평가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착각상관과 내외집단간 편파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환경을 설명하고 통제하며 예언하고자 한다. 그러한 시도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이다. 우리의 사건들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그리 완전하지가 않아서 종종 오류를 범하는데 그 오류는 판단을 하기 위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선택할때, 그 정보를 분류 할때, 정보를 회상하거나 판단을 하기 위해 정보들을 결합할 때 생긴다.

Hamilton과 Gifford(1976)는 사람들이 집단간 행동을 지각할 때 특출한 자극의 공발생 빈도를 과다 추정하는 인지적 편파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집단의 행동을 제시해 주었을때 피험자들은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는 관계가 없는데도 회소한 두 사상의 공발생에 해당하는 집단의 행동을

과다추정하였다. 즉, 소수집단의 소수행동이 특출하게 지각됨으로서 피험자들은 그 정보를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illusory correlation)을 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편파는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는 바 소수집단의 불미한 행동을 과다추정함으로써 소수집단을 다수집단보다 더 비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Hamilton 등의 연구에서 자극집단은 피험자들이 사전에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아니었으며 피험자가 어떤 자극집단과 관련이 된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 일상생활속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보다는 자극집단과 내외집단 관계에 있는 상황하에서 집단을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대상을 집단으로 단순히 범주화하는 자체만으로도 내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기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기대는 외집단이 행한 우호적인 행동과 내집단이 행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절감(discounting)시키는 방향으로 정보를 지각하게 만든다(Howard & Rothbart, 1980). 이렇게 볼때, Hamilton 등(1976)의 연구에서 나타난 회소성에 기초한 인지적 편파와 피험자들의 집단소속에 따른 내집단 편파는 같은 유형의 정보처리에 있어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면 지각자가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고 회소한 행동이 불미스러운 것일 경우, 회소성의 효과로 보면 소수집단과 불미스러운 행동간의 공발생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집단 편파의 효과로 보면 소수집단과 불미스러운 행동간의 공발생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인지적 편파와 동기적 편파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집단에 대한 행동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며 이후 집단간 평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착각상관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두가지 서로 다른 추론과정에 관한 것이다. Hamilton 등(1976)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특출한 집단의 특출한 행동을 과다지각함으로써 착각상관이 일어났고 특출한 두 사상의 공발생에 대한 과다지각에 근거하여 판단을 함으로서 두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특출한 집단의 특출한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이었을 때 피험자들의 특출한 집단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고 특출한 집단의 특출한 행동이 긍정적이었을 때 피험자들은 특출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Hamilton 등의 연구의 피험자들은 집단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았을 때 집단에 대한 각각의 행동정보를 기억으로 부터 인출해 내어 그 정보에 근거하여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기억과 판단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정하는 Tversky와 Kahneman(1973)의 가용성 모델(availability model)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기억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기억과 판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억과 판단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뿐만 아니라 기억과 판단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Hastie & Park, 1986). Anderson과 Hubert(1963)의 두 가지 기억가설에 따르면 집단에 대한 행동기술문을 제시받았을 때 집단의 행동기술문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그 행동기술문으로 유도된 인상에 대한 기억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즉 집단에 대한 인상평가지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집단의 행동정보가 아니라 집단에 대해 형성된 인상이기 때문에 기억된 것과 집단에 대한 인상 평가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Hastie와 Park(1986)은 기억과 판단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두가지 서로 다른 추론과정을 구별하였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회적 추론은 다른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즉 목표인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과정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사람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동안 즉 그들을 본 후에 그들에 대해 추론을 하는 경우이다. 사회인지 영역에서 연구자들은 전자를 온라인(on-line) 추론과정이라고 하고 후자는 전자의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기억에 근거한(memory-based) 추론과정이라고 명명하였다. 기억에 근거한 추론은 관찰이후에 만들어지며 원래의(raw) 기억흔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온라인 추론의 경우에는 관찰하는 동안 만들어진 추론이 장기기억에 저장되어지고 이후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전에 형성된 추론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억에 있는 자극

사건의 비교적 직접적인 표상인 원자극(raw)인지 아니면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원래 자극사건과는 별개인 추론된(inferred) 것인지에 따라 추론과정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로 비추어 볼때 인지적 편파와 동기적 편파가 집단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인간의 서로 다른 두가지 추론과정 즉 기억에 근거한 추론과정과 온라인 추론과정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착각적 상관의 지각에 있어서 인지적 과정에 의한 특출성과 동기적 과정에 의한 특출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 본 것으로 Shaller와 Maass(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haller 등은 고정관념의 형성에 있어서 집단 멤버쉽과 회소성간의 상호작용의 역할을 조사해 보았다. 실험은 Hamilton과 Gifford(1976)의 착각적 상관연구에서의 실험설계와 사회적 범주화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설계를 결합하여 설계했다. 피험자들에게는 48개의 행동기술문이 제시되었고, 집단명은 두가지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을 가진 집단으로서 집단 A와 집단 B로 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집단 A의 성격유형의 수가 집단 B의 성격유형 수보다 많은 것으로 묘사하여 집단 A가 다수집단이 되고 집단 B가 소수집단이 되게 하였다. 각각의 행동기술문은 각 성격유형의 대표적 사례를 뽑은 것이라고 피험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제시된 48개의 행동기술문 중 집단 A를 묘사한 것이 32개이고 집단 B를 묘사한 것은 16개 였다. 바람직한 행동과 불미스러운 행동의 비율은 두집단 모두 3:1이 되게 하였는데 한 집단에게는 바람직한 행동이 많게 하였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불미스러운 행동이 많게 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과 불미스러운 행동의 비율은 한 조건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회소(infrequent)하게 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불미스러운 행동이 회소하게 하였다. 행동기술문을 제시하기 전에 사전에 실시된 성격검사에 따라 각 피험자가 어떤 집단의 성원과 일치하는 성격유형을 갖고 있는가를 알려 주었다. 한 조건에서는 피험자가 소수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에서는 피험자가 다수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를 알려주지 않은 통제집단이 있었다.

결과를 보면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는 바 소수집단의 소수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피험자가

집단의 구성원인 경우 착각적 상관이 달리 나타났다. 즉 피험자들의 집단 멤버십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쳐 소수집단의 소수행동을 과다 추정하는 착각상관이 피험자의 집단소속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기존의 착각상관에 관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결과가 가정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다. 예를들면 소속 집단의 재인과제에서 피험자가 집단 A에 속한 경우 피험자들은 집단 B의 불미한 행동이 특출할때 그 행동을 과다추정해야 하고 피험자가 집단 B에 속한 경우 피험자는 집단 B의 바람직한 행동이 특출할때 그 행동을 과다추정하여야 했으나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특히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정에 있어서 내외집단간 편파가 일어났다면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외집단에 비해 우호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대해서 연구자들은 주로 추론의 두가지 과정(기억추론과정과 온라인추론과정)에 따른 차이와 증속측정치간(소속 집단의 재인과제와 빈도추정과정)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요인 이외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내외집단간 편파와 관련된 것이다. 개인이 내외집단으로 구분됨으로써 나타나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는 사회정체감 이론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으로 개인들은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동기화 된다는 것이다. 내외집단간 편파가 집단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피험자들이 내외집단으로 범주화되고 내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대를, 외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그러한 기대가 집단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Shaller 등의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으로 피험자들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경우 피험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집단은 우호적으로 지각하고 자신과 다른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비우호적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은 피험자들이 내외집단으로 범주화 되었을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원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하는 것과 자신을 좋게 보려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집단의 성원이 자신과 유사하다는 지각된 유사성만으로는 내집단을 우호적으로 지각하지 않으며 자신을 우호적으로 지각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내집단편애가 생

긴다. 단순히 피험자를 내외집단으로 분류하는 것만으로 내집단편애가 일어난다고 가정할수는 없다. 사회정체감이론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내집단편애는 사람들이 내외집단으로 구분되었을때 자신을 좋게 평가하려고 하거나(Turner, 1975), 자신의 집단이 공동운명(common fate)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거나(Rabbie & Horwitz, 1969), 집단간 보상의 분배와 관련되었을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이 위협을 받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 또한 흑인 아동의 오동일시(자신을 백인과 동일시하려는 것)와 같은 외집단 선호 현상도 일어난다고 한다. Shaller 등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성격유형에 따라 내외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경우 피험자들이 자신의 성격을 좋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야만 내집단편애가 일어날 것이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시에도 내집단 편애와 같은 동기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외집단간 편파가 집단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한 연구에서 피험자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하기 위해 성격유형을 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 지각자들이 일반적인 사회적 집단범주(예: 성, 인종, 지역)를 지각할 때와 성격유형의 집단을 지각할 때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사회적 집단범주의 경우에 지각자는 집단이 하나의 통일된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지각자는 집단구성원간에 상당히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 집단구성원의 특성이 모든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각자는 다양한 집단구성원의 속성이나 행동들을 하나의 인상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이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과 이탈되는 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한 성원의 행동을 다른 성원의 행동과 비교하여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시 지각자는 자신이 사회적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과 불일치한 정보보다는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회상한다(Wyer, Bodenhausen & Srull, 1984; Weber & Crocker, 1983). 이와 달리, 같은 성격유형을 가진 집단의 경우 지각자는 집단구성원이 안정되고 일관된 특징이나 기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Jones & Davis, 1965) 집단에

대해 조직화되고 통합된 표상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때 지각자는 자신이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과 이탈되는 성원들의 행동을 전체 인상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지지화: bolstering)의 결과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시 자신의 인상과 일치하는 정보보다는 불일치한 정보를 더 잘 회상할 것이다 (Bargh & Thein, 1985; Srull, 1981; Stern, Marrs, Millar & Cole, 1984; Wyer & Gordon, 1982).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집단정보처리에서 동기적 편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외집단간 구분이 분명한 사회적집단범주로 피험자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착각상관 연구는 제삼자인 피험자가 실험자가 설정한 가공의 자극 집단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 회소성으로 인한 특출성의 효과 때문에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의 공발생을 과다지각하는 착각상관의 현상을 규명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내외집단의 행동을 지각할 때 착각상관이 일어날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던 바 특히 피험자의 내외집단의 소속에 따른 동기적 편파와 자극집단의 지각적 특출성의 효과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두 지역집단(경상도 집단과 전라도 집단)을 자극집단으로 정하고 피험자 역시 이 두 자극집단중 어느 한 집단에 속하는 집단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하는 경우 그들의 집단소속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인 바 피험자가 다수집단에 속한 경우 소수집단의 특출한 행동(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인지적 편파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지각하려는 동기적 편파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가설 2: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하는 경우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을 나타낼 것이나 그들이 소수 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우호적으로 지각하려는 동기적 편파가 그러한 인지적 편파를 완화시킬 것인 바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더 적게 지각하거나 착각상관을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피험자들이 온라인 추론을 하는 경우 그들은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나 피험자가 자극집단중 어떤 한 집단에 속한 경우 집단소속에 따른 동기적 편파가 집단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정보는 과다지각할 것이며 비바람직한 행동정보는 과소지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의 착각상관은 가설 4와 5에서의 착각상관보다는 그 정도가 적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조건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온라인 지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가설 3: 온라인 추론을 하는 경우 피험자들은 외집단의 비우호적인 행동정보는 과다지각하고 우호적인 행동정보는 과소지각하며, 내집단의 비우호적인 행동정보는 과소지각하고 우호적인 정보는 과다지각할 것이다.

가설 4: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선호도는 행동기술문을 제시하기 전의 집단범주화에 의해 형성될 것인 바 피험자가 자극집단중 어느 한 집단에 속한 경우 두 가지 다른 추론과정에 따라 그들의 집단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두 지시조건 모두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피험자를 선정할 기준은 두가지 였는 바 피험자들의 출신지역(고교때까지 거주, 성장한 곳)과 피험자들의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도이었다. 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연세대학교와 전국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199명(남: 129명, 여: 70명)이었다(내외집단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할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이를 피험자 647명에게 실시했고 이들중에서 위에 말한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피험자를 선정했다). 피험자들을 출신지역과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상도 출신이면서 경상도에 대해 선호도를 갖고 있는 피험자 64명, 전라도 출신이면서 전라도에 대해 선호도를 갖고 있는 피험자 46명, 기타지역 출신이면서 경상도나 전라도에 대한 선호도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피험자 89명이었다.

피험자의 선정

피험자들의 경상도 집단과 전라도 집단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이 두 집단에 대한 선호도 측정을 실험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검사는 수업시간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은 집단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고 6주가 지난 다음에 실시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선호도는 특질형용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그 특질형용사는 기존 연구(송관재, 이훈구, 1991)에서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특질형용사(예: 성실하다, 이해심이 있다, 인자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차갑다, 이기적이다, 치사하다, 인간적이다 등) 9개였다. 피험자들에게 이 특질형용사를 제시하고 두 집단의 구성원을 그러한 특질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선호도 측정결과 어느 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더 우호적으로 평가한 피험자를 선별하였다(피험자 각자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피험자). 이때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해 분명한 선호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험자와 자신의 출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호하는 피험자들은 선정 대상집단에서 제외시켰다. 통제조건의 피험자들은 기타지역(경상도나 전라도 이외의 지역) 출신 중 경상도나 전라도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을 차별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피험자들이었다.

자극재료

먼저 사람들의 지적인 행동과 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기술문 100개를 선정했는데 그것은 이전 연구(홍영오, 1991; 박수애, 1991)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새로 연구자가 만든 것이 포함되었다. 이 행동기술문을 피험자 294명(남: 207, 여: 87)에게 제시하여 주고 각각의 행동기술문을 바람직성의 차원에 따라 9점척도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한쪽 끝은 「매우 바람직하다」였고 다른 끝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각 행동기술문의 평가치를 측정하였고 그 평균치를 계산했다. 자극으로 사용할 행동기술문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평균치가 7점이상인 행동기술문중에서 선택하였고 비바람직한 행동은 평균치가 3점 이하인 행동기술문중에서 선택하였다. 전체 36개의 행동기술문[바람직한 행동(예: 친구가 아파트를 도배하

는 것을 도왔다)이 24개, 비바람직한 행동(예: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뒤 말도 안하고 지낸다)이 12개]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는데 그 행동기술문은 지적인 행동(대학교급 교양영어 시험에서 A를 받았다)과 사회적 행동(국민학교 동창회 모임을 주선하였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피험자들은 대학생들이었지만 그들과 별로 관련이 없는 행동 즉 대학생들이 한 것 같지 않은 행동(예: 아기의 백일떡을 모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들도 포함시켰다. 피험자들이 주로 나타내는 행동들로만 자극을 만들 경우 피험자들이 행동기술문으로 묘사된 것을 어떤 집단과 연상시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절 차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들에게 지시문을 나누어 주었다. 피험자의 반에게는 제시되는 행동기술문을 기억하라는 지시문을 주었고 나머지 반에게는 제시되는 행동기술문에 기초하여 각 집단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라는 지시문을 주었다[이전 연구(송관재, 이훈구, 1993)를 통해 검증된 지시문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 36개의 행동기술문이 제시되었다. 36개의 행동기술문 중 다수집단(경상도 집단 혹은 전라도 집단)을 묘사하는 행동기술문은 24개(바람직한 행동은 16개, 비바람직한 행동은 8개)였고, 소수집단(경상도 집단 혹은 전라도 집단)을 묘사하는 행동기술문은 12개(바람직한 행동은 8개, 비바람직한 행동은 4개)였다. 각 행동기술문에는 집단명과 행동을 한 사람의 이름 및 행동이 적혀있었다(예, 영호는 경상도 출신인데, 아픈 친구의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36개의 행동기술문이 모두 제시된 다음에 세가지 중속측정을 시행했다.

실험장치

자극 슬라이드를 제시하기 위하여 환등기(Kodak Ektagraphic RA-960 random-access carousel projector)가 사용되었다. 자극은 반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화면에 제시되 뒤에서 투사되었다. 자극제시 시간은 환등기의 전면에서 설치된 셔터형 순간노출기(shutter type tachistoscope)에 의해 통제되었다. 순간노출기와 환등기를 통제하기 위하여 퍼스널 컴퓨터

(IBM호환 기종으로 16bit computer인 UNION사의 TURBO-XT) 1대가 사용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각 행동기술문의 제시시간은 10초로 통제하였으며 다수집단을 묘사하는 24개의 행동기술문과 소수집단을 묘사하는 12개의 행동기술문들은 각각 무선적으로 제시되도록 컴퓨터에 의해 통제하였다.

종속 측정

소속집단의 재인 과제: 두 집단을 묘사하는 36개의 행동기술문이 제시된 다음 피험자에게 36장의 카드묶음을 나누어 주었다. 각 카드에는 행동을 한 사람의 출신지역을 나타내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적혀 있었다. 카드묶음을 나누어 준 다음 피험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지금부터 슬라이드 화면에 여러분이 보신 행동기술문중 행동을 한 사람과 행동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동기술문을 읽고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어느 집단성원인가를 각 카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속측정시의 행동기술문도 슬라이드로 제시되었는데 제시순서는 컴퓨터로 통제하여 무선화하였으며 제시시간은 각 행동기술문당 10초였다. 피험자들에게는 슬라이드 화면에 제시되는 행동기술문을 본 다음 그 행동기술문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어느 집단의 성원인가를 카드에 표시하게 하였다. 슬라이드 화면에는 행동기술문이 하나씩 제시되었으며 피험자들에게는 하나의 카드에 표시를 한 다음 카드를 넘기게 하였다.

선호도 평정: 경상도 집단과 전라도 집단에 대한 선호도를 15점 척도상에서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의 한쪽 끝은 「매우 좋다」였고 다른 한쪽 끝은 「매우 싫다」였다. 소속집단의 재인 과제와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정은 서로 역균형(counterbalanced) 시켰다.

빈도추정 과제: 피험자들에게 각 집단이 행한 전체 행동의 수를 알려주고 그 행동들 중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를 추정하게 하였다. 바람직한 행동의 수는 전체 행동기술문의 수에서 피험자들이 반응한 비바람직한 행동기술문의 수를 빼서 계산하였다. 빈도추정과제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측정하였다.

결 과

1) 가설 1과 2의 검증

가설 1과 가설 2는 피험자들이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하는 경우 그들의 집단소속이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소속집단의 재인 과제: 소속집단의 재인 과제에서 피험자들의 집단소속에 따라 그들의 평균 Z점수가 0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t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기타지역의 출신이면서 어떤 한 집단을 차별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피험자들 즉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기억지시조건의 경우 통제집단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는 -0.07로서 이는 0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42) = -1.39, ns$]. 기억지시조건의 경우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 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결과는 피험자들이 착각상관의 경향성만을 보일뿐 그 착각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 < .0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들이 행동의 바람직성에 따라 행동기술문을 집단에 어떻게 귀인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표 1).

기억지시조건에서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행동의 바람직성에 따라 집단에 귀인한 행동기술문의 수를 실제 실험시 제시했던 행동기술문의 수와 비교한 결과 피험자가 판단한 다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의 수(15.60)는 실제 제시된 행동기술문의 수(16)와 차이가 없었고 [$t(42) = -1.31, ns$], 피험자가 판단한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4.98)는 실제 제시된 행동기술문의 수(4)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42) = 1.97, p < .05$].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가정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기억지시조건의 경우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가 내외집단에 속한 경우 피험자들의 내외집단간 소속에 따라 착각적 상관이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는 -0.21로서 이는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t(31) = -8.77, p < .001$], 또한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 역시 0.11으로서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8)=4.32, p<.001$]. 두 자극집단중 어느 한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는데 피험자가 다수집단에 속하는가 소수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파이계수의 방향이 달랐다(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음수,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양수). 이는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다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였다는 것이고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다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착각상관이 피험자의 집단소속에 따라 어떤 정보에 기초하여 일어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들의 집단소속별로 피험자들이 내집단과 외집단에 귀인한 바람직한 행동기술문과 비바람직한 행동기술문의 수를 살펴 보았다(표 1).

피험자들이 행동기술문을 집단으로 귀인한 귀인빈도율을 살펴 보면 다수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내외집단에 귀인시킨 것은 실제 빈도율과 차이가 없었으나[67% 대 33% : $t(31)=-0.12, ns$] 비바람직한 행동을 집단에 귀인시킨 것은 실제 빈도율과 차이가 있었다[47% 대 53% : $t(31)=-5.16, p<.001$].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비바람직한 행동을 내집단 보다 외집단에 실제 빈도율(33%) 보다 많이 귀인시켰다(53%).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비바람직한 행동을 내외집단에 귀인시킨 것(70% 대 30%)은 실제 빈도율(67% 대 33%)과 차이가 없었으나[$t(28)=0.78, ns$] 바람직한 행동을 집단에 귀인한 것은

실제 빈도율과 차이가 있었는데[57% 대 43% : $t(28)=-3.21, p<.01$] 피험자들은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귀인시켰다.

네가지 범주의 행동정보 각각에 대해 집단에 속한 피험자가 판단한 행동 기술문의 수와 실제로 제시된 행동 기술문의 수를 비교하였다.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가 판단한 내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의 수(16.09)는 실제 제시한 행동의 수(16)와 차이가 없었으나[$t(31)=1.51, ns$] 이들이 판단한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6.28)는 실제 제시한 행동의 수(4)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1)=8.39, p<.001$]. 이로서 가설 1이 지지되었는데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을 나타내었다.

피험자가 소수집단에 속한 경우를 보면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가 판단한 내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3.58)는 실제 제시한 행동의 수(4)와 유의미한 차가 없었으나[$t(28)=-1.56, ns$] 내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의 수(10.19)는 실제 제시한 행동의 수(8)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8)=7.47, p<.001$]. 이러한 결과는 기억지시조건에서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내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5를 지지하는 것이다.

빈도추정과제 : 통제집단 피험자들의 빈도추정과제 결과를 살펴보면 그들의 평균 Z점수는 -0.10이었는데 이는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2)=-2.46, p<.05$].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기억에 근거하여 추론을 하였을 때 지각한 착각상관이 어떤 정보에 기초하여 일어났는

<표 1> 기억지시조건에서 피험자가 행동기술문을 집단으로 귀인한 평균 회수

()은 귀인빈도율

집단소속 표적집단 행동기술문 의 유형	다수집단		소수집단		통제집단		합 계
	내집단	외집단	외집단	내집단	다 수	소 수	
바람직	16.09 (.67)	7.91 (.33)	13.81 (.57)	10.19 (.43)	15.60 (.65)	8.40 (.35)	24.00 (1.00)
비바람직	5.72 (.47)	6.28 (.53)	8.42 (.70)	3.58 (.30)	7.02 (.58)	4.98 (.42)	12.00 (1.00)
계	21.81	14.19	22.23	13.77	22.62	13.38	36.00

가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들이 판단한 네가지 범주의 행동의 수와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2).

표 2를 보면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추정한 다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의 수(16.88)는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16)와 차이가 없었고[t(42)=1.57, ns], 피험자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4)와 차이가 없었다[t(42)=1.90, ns].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그러한 경향성만을 보였을뿐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6$). 이 결과는 행동기술문에 실제 집단이 묘사되었기 때문에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행동 기술문을 보다 정확하게 지각한 결과로 볼수 있다.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그들의 집단소속에 따라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때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는 -0.19로서 이는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t(31)=-6.45, $p < .001$],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는 0.07로서 이 또한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8)=2.98, $p < .01$].

피험자가 집단에 속한 경우 착각상관이 어떤 정보에 기초하여 일어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가 판단한 네가지 범주의 행동의 수를 실제 제시한 행동의 수와 비교하였다(표 2). 표 2를 보면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추정한 내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의 수(17.29)는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16)와 차이가 있었고[t(31)=

2.98, $p < .01$] 피험자들이 추정한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5.55)도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4)와 차이가 있었다[t(31)=4.64, $p < .001$]. 피험자들이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하는 경우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빈도추정과제에서 가설 1과 일치하게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였다. 또한 이 조건에서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내집단의 바람직한 행동도 과다추정했는데 이는 자신의 집단을 우호 적으로 지각하려는 동기적 편파가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집단 피험자들의 빈도추정과제 결과를 보면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추정한 내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4.10)는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4)와 차이가 없었고[t(28)=0.42, ns] 피험자들이 추정한 외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의 수(14.46)는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16)와 차이가 있었다[t(28)=-1.95, $p < .001$]. 이 결과에서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내집단인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지 않은 것은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도 그들의 집단에 대한 선호도와 일치하는 정보인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였다.

2)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은 피험자들이 온라인 추론을 하는 경우 집단 소속이 그들의 정보처리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것이다.

소속집단의 재인과제 :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소속집단

<표 2> 기억지시조건에서 피험자가 각 집단 행동기술문의 바람직성별로 그 빈도를 추정한 빈도추정치의 평균

()는 빈도추정치의 비율

집단소속 표적집단 행동기술문 의 유형	다수집단		소수집단		통제집단	
	내집단	외집단	외집단	내집단	다수	소수
바람직	17.29 (.72)	6.45 (.53)	14.46 (.60)	7.90 (.65)	16.88 (.70)	7.29 (.60)
비바람직	6.71 (.27)	5.55 (.47)	9.54 (.40)	4.10 (.35)	7.12 (.30)	4.71 (.40)
계	24.00	12.00	24.00	12.00	24.00	12.00

의 재인과제에서 피험자들의 집단소속에 따라 그들의 평균 Z점수가 0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t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통제 집단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는 0.00으로서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47)=0.03, ns]. 이 조건에서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착각상관을 지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의 가정이었는데 파이계수로 볼때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 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하지 않았다.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판단한 네가지 범주의 행동의 수를 그들에게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와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피험자가 내외집단에 속한 경우 그들의 내외집단간 소속에 따라 착각상관이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는 -0.15로서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t(25)=-4.57, p<.001]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도 0.10으로서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6)=3.16, p<.01].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파이계수의 방향만 달랐을뿐 그들의 집단소속에 관계없이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지각 하였다.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과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피험자들의 집단소속별로 평균 Z점수의 절대치에 대해 차이검증을 해보았다. 그 결과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의 정도(0.15)는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의 정도(0.10)보

다는 컸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51)=1.24, ns].

내외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온라인 추론을 하는 경우에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이 발생하였는데 그러한 착각상관이 어떤 범주정보에 기초하여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들이 내외집단에 귀인한 바람직한 행동기술문과 비바람직한 행동기술문의 수를 살펴보았다(표 3).

표 3을 보면 다수집단의 피험자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내외집단에 귀인한 것(65% 대 35%)은 실제 빈도율(67% 대 33%)과 차이가 없었고[t(25)=-0.54, ns] 비바람직한 행동을 내외집단에 귀인한 것(51% 대 49%)은 실제 빈도율과 차이가 있었다[t(25)=-3.62, p<.001]. 즉 다수집단의 피험자들은 실제 빈도율과 비교해서 외집단에 비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귀인시켰다.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비바람직한 행동을 내외집단에 귀인한 것(64% 대 36%)은 실제 빈도율(67% 대 33%)과 차이가 없었고[t(26)=-0.71, ns] 바람직한 행동을 내외집단에 귀인한 것(53% 대 47%)은 실제 빈도율과 차이가 나타났는바[t(26)=-4.01, p<.001]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내집단에 바람직한 행동(47%)을 실제 빈도율(33%)보다 더 많이 귀인시켰다.

피험자들의 집단소속별로 네가지 범주의 행동정보에 대해 피험자가 판단한 행동기술문의 수와 실제로 제시된 행동기술문의 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를 보면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가 판단한 내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의

<표 3> 인상지시조건에서 피험자가 행동기술문을 집단으로 귀인한 평균 회수

()은 귀인빈도율

집단소속 표적집단 행동기술문 의 유형	다수집단		소수집단		통제집단		합 계
	내집단	외집단	외집단	내집단	다 수	소 수	
바람 적	15.76 (.65)	8.24 (.35)	12.92 (.53)	11.08 (.47)	15.12 (.63)	8.88 (.37)	24.00 (1.00)
비바람 적	6.12 (.51)	5.88 (.49)	7.73 (.64)	4.27 (.36)	7.59 (.63)	4.41 (.37)	12.00 (1.00)
계	21.88	14.12	20.65	15.35	22.71	13.29	36.00

수(15.76)는 실제 제시한 행동의 수(16)와 차이가 없었고[t(25)=-0.41, ns], 피험자가 판단한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5.88)는 실제 제시한 행동의 수(4)와 차이가 있었다[t(25)=5.82, $p < .001$]. 인상지시조건에서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것이다.

피험자가 소수집단에 속했을때를 보면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가 판단한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7.73)는 실제 제시한 행동의 수(8)와 차이가 없었으나(t(26)=-0.91, ns] 내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의 수(11.08)는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8)보다 과다추정하였다[t(26)=6.37, $p < .001$].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론인바 인상지시조건에서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다.

빈도추정과제 : 피험자들이 행동의 바람직성에 따라 각 집단별로 행동의 수를 어떻게 추정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표 4). 먼저 통제집단 피험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평균 Z점수는 -0.02였는데 이는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47)=-1.21, ns]. 피험자들이 행동의 바람직성에 따라 행동기술문을 집단으로 귀인한 것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행동의 바람직성별로 다수집단에 귀인한 빈도율(68% 대 32%)은 실제 빈도율(67% 대 33)과 차이가 없었고[t(47)=-0.41, ns] 그들이 소수집단에 귀인한 빈도율(66% 대 44%)도 실제 빈도율과 차이가 없었다[t(47)=-0.38, ns]. 통제

집단의 피험자들이 판단한 네가지 범주의 행동의 수를 실제 제시된 행동기술문의 수와 비교해 보았을때도 네가지 범주 모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구의 가정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온라인 추론을 하는 경우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그들의 집단소속에 따라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 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가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t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는 -0.16으로서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t(25)=-6.20, $p < .001$],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평균 Z점수도 0.06으로서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6)=2.15, $p < .05$].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그들의 집단소속에 관계없이 빈도추정과제에서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다. 피험자들의 집단소속에 따른 착각상관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소속별로 평균 Z점수의 절대치에 대해 차이검증을 해보았다. 그 결과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의 정도(0.16)는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의 정도(0.06)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1)=3.92, $p < .05$]

피험자가 내외집단에 속한 경우 착각상관이 어떤 정도에 기초하여 일어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가 판단한 네가지 범주의 행동의 수를 실제 제시한 행동의 수와 비교하였다(표 4). 결과를 보면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추정한 내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의 수(16.

<표 4> 인상지시조건에서 피험자가 각 집단 행동기술문의 바람직성별로 그 빈도를 추정한 빈도추정치의 평균 ()는 빈도추정치의 비율

집단소속 표적집단 행동기술문 의 유형	다수집단		소수집단		통제집단	
	내집단	외집단	외집단	내집단	다수	소수
바람직	16.56 (.69)	6.31 (.52)	14.19 (.59)	7.85 (.65)	16.55 (.68)	8.02 (.66)
비바람직	7.44 (.31)	5.69 (.48)	9.81 (.41)	4.15 (.35)	7.45 (.32)	3.98 (.44)
계	24.00	12.00	24.00	12.00	24.00	12.00

56)는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16)와 차이가 없었고[t(25)=1.17, ns] 그들이 추정된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5.59)는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4)와 차이가 있었다[t(25)=4.06, $p < .001$].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것인바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다.

피험자가 소수집단에 속했을때를 보면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가 추정된 내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4.15)는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4)와 차이가 없었고[t(26)=0.49, ns] 그들이 추정된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9.81)는 실제 제시된 행동의 수(8)와 차이가 있었다[t(26)=2.62, $p < .01$].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내집단인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 추정하지 않은 것은 가설 6과 일치한다. 한편 그들은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 추정함으로써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다.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을 두가지 추론과정별로 비교하였을때 이 연구에서는 기억지시조건에서 보다 인상지시조건에서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의 정도가 더 적을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그 이유는 인상지시조건에서 피험자들은 정보를 더 정교하게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소수집단의 재인 과제에서 두 지시조건간에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을 비교해 보면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0.21 대 -0.15)과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0.11 대 0.10)의 착각상관은 기억지시조

건에 비해서 인상지시조건에서 더 적게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 : t(56)=1.02, ns,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 : [t(54)=0.41, ns]. 두 지시조건간의 차이를 다른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 두 지시조건별로 피험자들의 재인정확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상지시조건에서의 피험자들의 재인정확률 평균(71.38%)은 기억지시조건에서의 피험자들의 재인정확률 평균(66.25%)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했다[t(110)=4.57, $p < .001$]. 이는 인상지시조건의 피험자들이 기억지시조건의 피험자들 보다 정보를 더 정확하게 지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설 4의 검증

가설 4는 피험자들의 자극집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가설이었는데바 피험자가 자극집단중 어느 한 집단에 속한 경우 두 지시조건 모두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시조건과 집단소속에 따라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2(지시조건)×3(집단소속)×2(표적대상)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지시조건과 집단소속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집단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두 지시조건별로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두 집단에 대한 평가의 평균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시조건의 주효과(F

<표 5> 두 지시조건별 집단소속에 따른 피험자의 두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정의 평균

()는 표준편차

지시조건	기억지시조건		인상지시조건	
	다수집단	소수집단	다수집단	소수집단
표적집단				
집단소속				
다수집단	10.03 (1.45)	6.94 (1.63)	10.52 (1.53)	6.96 (2.29)
소수집단	6.92 (2.14)	9.89 (1.71)	6.66 (1.90)	10.48 (1.66)
통제집단	9.76 (1.79)	8.35 (1.62)	9.29 (2.08)	8.76 (1.89)

논 의

(1, 193)=0.71, ns]와, 피험자의 집단소속의 주효과[$F(2, 193)=2.24$, ns] 그리고 피험자내 변인인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93)=0.05$, ns]. 그러나 상호작용의 효과 중 가설을 지지해 주는 피험자의 집단소속×집단의 이원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2, 193)=103.33$, $p<.001$] 그외 다른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억지시조건과 인상지시조건간에 피험자들의 두 집단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없었고(예, 10.03 대 10.52, 6.94 대 6.96) 두 지시조건 모두에서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인 외집단보다 다수집단인 내집단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으며[$t(31)=8.04$, $p<.001$]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도 다수집단인 외집단보다 소수집단인 내집단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t(29)=-6.38$, $p<.001$]. 이로서 가설 4이 지지되었는데 두 지시조건에 관계없이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외집단 보다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

두 지시조건내에서 통제집단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면 그들은 기억지시조건의 경우 다수집단보다 소수집단을 유의미하게 덜 우호적으로 평가하였고[$t(42)=2.37$, $p<.05$], 인상지시조건의 경우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 대한 평가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47)=0.87$, ns].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두 지시조건별로 그들의 착각상관과 집단평가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이때 착각상관의 수치는 피험자들의 빈도추정과정의 파이계수를 사용하였고 집단평가치는 피험자의 다수집단에 대한 평가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평가치를 빼것으로 사용하였다. 기억지시조건의 경우 통제집단 피험자들의 착각상관과 집단평가간의 상관은 $-.76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p<.001$) 인상지시조건의 경우 피험자들의 상관은 $.127$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하는 경우 그들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함으로써 소수집단을 더 비우호적으로 평가한 반면 이들이 온라인 추론을 하는 경우 범주정보가 제시될때 형성된 인상에 기초하여 집단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의 집단간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자극집단과 내외집단관계에 있는 경우 피험자의 집단소속에 따른 내외집단간 편파가 지각적 특출성으로 인한 인지적 편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송관재 등, 1993)에서 밝혀졌듯이 피험자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때 피험자들은 회소성으로 인한 특출성의 효과 때문에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을 지각하였다. 그러한 착각상관은 공발생에 해당하는 정보인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정보가 지각적 특출성으로 인해 더 잘 부호화되고 이후 회상시 접근하기가 용이한 정보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험자가 자극집단과 내외집단 관계에 있는 경우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다른 범주행동들 보다 더 잘 부호화하지 않을 것인 바 그 행동정보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호적으로 지각하려는 동기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자극집단과 내외집단관계에 있지 않은 피험자들 즉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기억지시조건에서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할 것이고 인상지시조건에서는 그러한 착각상관을 지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실험결과는 가정을 지지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때 피험자들의 지각이 더 정확하였는 바 이는 본 연구의 자극집단이 실험자가 정한 가공의 집단이 아니고 실제 집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피험자들의 소속집단에 대한 재인정확률을 살펴본 결과가 이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준다[이전 연구(송관재, 1993)의 기억지시조건에서 피험자들의 재인정확률은 57.25%이었던 반면 본 연구의 기억지시조건에서 통제집단 피험자들의 재인정확률은 66.25%이었다].

이 연구에서 두 지시조건별로 차이를 가정했는 바 먼저 기억지시조건의 경우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인지적 편파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지각하려는 동기적 편파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인

지적 편파가 자신이 속한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지각하지 않는 동기적 편파에 의해 적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결과를 보면 소수집단의 재인과제와 빈도추정과제에서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였으며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지 않았다.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이 지각적 특출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인지적 편파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피험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호적으로 지각하려는 동기적 편파가 집단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상지시조건의 경우에는 피험자들이 정보를 지각할 때 지각적 특출성으로 인한 인지적 편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집단을 우호적으로 지각하려는 동기적 편파만이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따라서 기억지시조건의 경우와 비교해서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착각상관을 더 적게 지각할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결과를 보면 인상지시조건의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은 기억지시조건의 피험자들의 착각상관과 차이가 없었다.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은 가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한 선호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일치하지 않는 정보보다 더 과다추정하였다. 즉,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다수집단의 우호적인 정보와 소수집단의 비우호적인 정보를,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우호적인 정보와 다수집단의 비우호적인 정보를 과다추정하였다. 이 결과는 도식(schema)과 일치하는 정보가 불일치하는 정보보다 더 잘 회상된다는 도식적 정보처리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다(Cantor & Mischel, 1977; Taylor & Crocker, 1981). 피험자들의 소속 집단의 재인과제에서의 재인정확률이 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바 기억지시조건에서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선호도와 일치하는 정보(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는 다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정보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정보, 소수집단의 피험자는 소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정보와 다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정보)에 대한 피험자들의 재인정확률은 76%이었고 집단에 대한 선호도와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피험자들의 재인정확률은 57%이었다(인상지시조건의 경우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재인정확률은 78%이었고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재인정확률은 65%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도식(schema)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일치하는 정보보다 더 잘 회상된다는 연구결과(Hastie & Kumar, 1979)가 있었는가 하면 반면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가 불일치하는 정보보다 더 잘 회상된다는 연구결과(Rothbart, Evans & Fulero, 1979)도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해 Stern, Marrs, Millar와 Cole(1984)은 지각표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는데 지각표적이 개인인 경우 도식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더 잘 회상되며 지각표적이 집단인 경우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가 더 잘 회상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orgida와 Howard-Pitnet(1983)은 피험자들의 개인적 관여(involveement)에 따라 정보처리가 달라지는데 피험자가 관여되어 있을 때는 정보가 체계적으로(systematic) 처리되어지기 때문에 도식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더 잘 회상되어 질것이고 피험자가 관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발견법적으로(heuristic) 정보가 처리되기 때문에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가 더 잘 회상되어 질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선호도와 일치하는 정보가 불일치하는 정보보다 더 잘 회상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피험자가 분명한 집단소속감을 갖고 또 집단 선호도가 뚜렷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내집단에 대한 관여가 기존의 다른 연구보다도 더 높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우리는 피험자의 집단에 대한 관여도의 정도는 그들의 집단 선호도와 일치성 정보에 대한 기억과는 역 U곡선을 그릴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두가지 추론과정에서의 비교를 통해 인지적 편파와 동기적 편파가 집단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피험자들이 기억에 근거하여 추론을 할 때에는 지각적 특출성으로 인한 인지적 편파와 집단소속으로 인한 동기적 편파가 모두 작용하는 경우이고 온라인 추론을 할 때에는 집단소속에 따른 동기적 편파만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가 집단정보 처리과정에서의 인지적 편파와 동기적 편파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조건에서의 피험자들의 착각상관을 비교함으로써 인지적 편파와 동기적

편파의 영향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살펴봐왔다. 이 연구에서 보면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하는 경우 범한 착각상관의 정도는 -0.21 이었고 피험자들이 온라인 추론을 하는 경우에 범한 착각상관의 정도는 -0.15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thought)보다는 감정이 판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Zajonc(1980)의 판단과정모델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인상지시조건의 결과에서 주목을 끄는 사실은 소속집단의 재인과제 결과에서 볼때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아닌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였고,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소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험자들의 집단소속에 따라 착각상관이 달리 나타났는 바 피험자가 다수집단에 속한 경우 그들의 착각상관은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 보다 높았다.

인상지시조건에서는 피험자들이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 착각상관을 지각하지 않을 것이고 피험자들의 집단소속에 따른 동기적 편파만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험자가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중 어느 집단에 속하든지 그들의 착각상관의 정도는 같게 나와야 한다. 결과에서 보면 다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한 것이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그들이 속한 소수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을 추정한 것보다 컸다. 이는 피험자가 다수집단에 속한 경우 그들의 동기적 편파가 정보처리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 바 피험자가 다수집단에 속하는가 소수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집단정보처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집단구성원들이 자신의 견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내외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시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한다(Mullen, 1983). 따라서 그러한 과정이 소수집단에 속한 피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단이 행한 바람직한 행동에 더 주목하도록 하였을 수 있다.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선호도 평정결과를 보면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기억지시조건에서 소수집단을 다수집단보다 덜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인상지시조건에서는 집단간에 차별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는

가정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기억지시조건의 경우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집단소속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수 또는 소수집단 모두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소속되지 않은 집단보다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두 지시조건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피험자들이 정보를 제시받기 전에 자극집단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집단간에 평가적으로 동등한 정보를 제시해 주더라도 피험자들은 그 정보를 피험자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처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외집단의 비우호적인 행동을 과다추정하였기 때문에 외집단을 더 비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피험자들이 기존에 집단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고 제시되는 행동정보들은 선호도에 따라 편파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후 나타난 차별적인 집단평가는 기존에 피험자들이 갖고 있었던 선호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Fazio, 1986; Dovidio, Evans & Tylor, 1986).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피험자들의 지역 출신과 그들의 두 집단에 대한 선호도를 기준으로 피험자들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의 두 집단에 대한 선호도 기준은 두 자극집단중 자신의 출신집단을 차별적으로 선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선정된 피험자들은 그들의 집단에 대한 선호도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즉 피험자들중에는 피험자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피험자들도 있고 그 선호도가 낮은 피험자들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라도 출신의 피험자들중 경상도 집단을 선호하는 피험자는 있었던 반면 경상도 출신의 피험자들중 전라도를 선호하는 피험자는 한명도 없었다. 이는 두 집단에 대한 피험자들의 선호도의 강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선호도 수준에 따른 정보처리과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수애(1991). 사회적 범주의 변이성 지각: 두가지 정

- 보처리 과정(온라인과 기억근거)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송관재 · 이훈구(1991). 특질유사성 측정방법이 특질의 지각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32-46.
- 송관재(1993). 지각적 특출성과 내외집단 편파가 개인의 착각상관에 미치는 영향 - 기억추론과정과 온라인 추론과정상의 비교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홍영오(1991). 착각적 상관이 집단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일반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Anderson, N.H., & Hubert, S.(1963). Effects of concomitant verbal recall on order effects in personality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 379-391.
- Bargh, J.A., & Thein, R.D.(1985). Individual construct accessibility, person memory, and recall-judgment link: The case of information overlo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129-1146.
- Borgida, E., & Howard-Pitney, B.(1983). Personal involvement and the robustness of perceptual salienc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60-570.
- Cantor, N., & Mischel, W.(1977). Traits as prototypes: Effects on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8-48.
- Dovidio, J.F., Evans, N., & taylor, R.B.(1986). Racial stereotypes: The contents and their cognitive represen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22-37.
- Fazio, R.H.(1986). How do attitudes guide behavior? In R.M. Sorrentino & E.T. Higgins (Eds.), *The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204-243). New York: Guilford Press.
- Hamilton, D.L., & Gifford, R.K.(1976).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ic judge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92-407.
- Hamilton, D.L., & Sherman, S.J.(1989). Illusory correlations: Implications for stereotypic theory and research. In D. Bar-tal, C.F. Graumann, A.W. Kruglanski, & W. Stroebe(Eds.), *Stereotypes and prejudice: Changing conceptions*. New York: Springer-Verlag.
- Hastie, R., & Kumar, P.(1979). Person memory: Personality traits as organizing principles in memory for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5-38.
- Hastie, R., & Park, B.(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judgment depends on whether the judgment task is memory-based or on-line. *Psychological Review*, 93, 258-261.
- Howard, J.W., & Rothbart, M.(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memory for in-group and out-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01-310.
- Jones, E.E., & Davis, K.E.(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Mullen, B.(1983). Operationalizing the effect of the group on the individual: A self-attention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295-322.
- Rabbie, J.M., & Horwitz, M.(1969). Arousal of ingroup-outgroup bias by a chance win or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69-277.
- Rothbart, M., Evans, M., & Fulero, S.(1979). Recall for confirming events: Memory

- processes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stereotyp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5, 343-355.
- Shaller, M., & Maass, A. (1989). Illusory correl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Toward an integration of motivational and cognitive factors in stereotype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09-721.
- Srull, T.K. (1981). Person memory: Some tests of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mode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7, 440-463.
- Stern, L.D., Marrs, S., Millar M.G., & Cole, E. (1984). Processing time and the recall of inconsistent and consistent behaviors of individuals and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53-262.
- Taylor, S.E., & Crocker, J. (1981). Schematic bas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E. T. Higgins, C.P. Herman, & M.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Vol.1, pp.89-134). Hillsdale, NJ: Erlbaum.
- Trope, Y. (1986). Identification and inferential processes in disposition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view*, 93, 239-257.
- Turner, J.C. (1975).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identity: Some prospects for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5-34.
- Tversky, A., & Kahneman, D. (1973).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 207-232.
- Weber, R., & Crocker, J. (1983). Cognitive processes in the revision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961-977.
- Wyer, R.S., Bodenhausen, G.V., & Srull, T.K. (1984).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s and groups and its effect on recall and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445-469.
- Wyer, R.S., & Gordon, S.E. (1982). The recall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and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128-164.
- Zajonc, R.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Effects of Perceptual Salience and Group Membership on Individual's Group Information Processing

Kwan-Jae Song and Hoon-Ko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cognitive bias due to perceptual salience and motivational bias by group membership on individual's group information processing. In addition, it was studied whether the impacts of cognitive bias and motivational bias were affected by two inference processes, memory-based inference process and on-line inference process. In order to manipulate the group membership, two groups (KyungsangDo group vs ChunraDo group) were selected and subjects were sampled according to the growth area. The result found the moderate effect of cognitive bias and motivational bias on individual's group information processing. That is to say, in memory-based inference process, the illusory correlation based on overestimation of co-occurrence of distinctive events was found by the subjects who were in majority group and was not by the subjects in minority group. In on-line inference process, the subjects that were in majority or minority group showed the overestimation of favorable information and the underestimation of unfavorable information about their own group. It means that motivational bias due to group membership affected on informational processing. The result of study suggest that both the cognitive bias due to perceptual salience and the motivational bias by group membership has an influence on individual's group information processing.